

# 한어병음 'iong' 운모의 撮口呼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

김태은 · 이현선\*\*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운모 'iong'의 선행연구 四呼 귀속 개괄
3. 운모 'iong' 四呼 귀속의 불일치와 문제점
4. 실제 음가 인식에 기반한 운모 'iong'의 四呼 귀속
4. 나오는 말

## 1. 서론

초·중·종성의 삼분법으로 음절을 파악하는 우리말과는 달리 중국어의 음절은 일반적으로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그 구조를 파악한다.<sup>1)</sup> 음절머리(onset)에 위치하는 자음을 성모라고 하는데 만약 성모에 어떤 자음도 오지 않고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컬어 영성모(零聲母)라고 한다. 성모를 제외한 음절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운모에 들어가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음(segment)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므로 운모의 유형과 개수에 대한 견해는 성모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성과임(NRF-2009-361-A0002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교수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저자명은 가나다 순이며 공동1저자임.

1) 중국어라는 개념은 표준중국어인 보통화뿐만 아니라 방언과 때로는 소수민족어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보통화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표준중국어와 방언과의 구분을 요할 때에는 보통화라고 밝혀 쓰기로 하겠다.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sup>2)</sup> 그러나 운모의 구조를 개음(glide)에 해당하는 운두(韻頭), 주요모음(nucleus)에 해당하는 운복(韻腹), 말음(coda)에 해당하는 운미(韻尾)로 나누는 데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운모를 중국에서는 사호(四呼)라는 개념 아래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호란 전통 음운론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입모양에 따라 운모를 분류하는 것이다. 사호를 따질 때에는 운두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운두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개구호(開口呼), 운두 자리에 전설고모음 /i/가 오면 제치호(齊齒呼), 후설고모음 /u/가 오면 합구호(合口呼), 전설원순고모음 /y/가 오면 찰구호(撮口呼)라고 한다.<sup>3)</sup> 이때 운두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운복에 모음 /i/, /u/, /y/가 오면 각각 차례로 제치호, 합구호, 찰구호가 된다.<sup>4)</sup>

사호의 개념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 음절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전통 음운학을 이어 매우 안정하게 정리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인 만큼 실제 중국어 운모를 분류할 때 현재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사호의 개념이나 분류 자

2) 성모의 개수는 영성모 포함 22개라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운모는 그 유형에 대한 연구자마다 견해차가 존재하여 35-39개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중국어 모음의 유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긴밀하게 연계된 문제로서 본고의 주요 논의와는 상관성이 적어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3) 호(呼)는 애초에 개(開)와 합(合) 두 가지로만 나뉘고 전자는 운두나 운복이 /u/가 아닌 경우를, 후자는 운두나 운복이 /u/인 경우를 가리켰다. 이후 음변(音變)에 따라 송원명(宋元明)대에 이르러 양호(兩呼)의 개념이 사등(四等)의 개념과 통합되는 가운데 개구 1,2등운은 개구호로, 개구 3,4등운은 제치호로, 합구 1,2등운은 합구호로, 합구 3,4등운은 찰구호가 되어 이때부터 사호 개념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등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4) 한어병음은 실제 음가를 나타낼 수 없다. 일례로 한어병음 'i'는 경구개음과 어울릴 때에만 [i]의 음가를 나타내고, 치경음이나 권설음과 어울릴 때에는 각각 [ɿ]와 [ɨ]의 음가를 지녀 사호로 분류를 하자면 [i]와는 달리 제치호가 아닌 개구호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본고에서는 음소(phoneme)를 나타내는 // 안에 해당 IPA를 제시하여 가급적 정확한 음가를 표시해 주고자 한다. 또 때때로 음소가 아닌 음성(phone)을 표기하여 보다 정밀한 전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를 쓰고 IPA로 음가를 제시할 것이다. 반면 편의를 위해 한어병음 표기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어병음이라는 말을 써서 음가와 구분하도록 하겠다. 단 본고 고찰의 중심이 되는 운모인 한어병음 'iong'의 경우는 자주 언급하므로 한어병음이라는 말을 생략하는 대신 ' ' 안에 넣어 'iong'으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체에 대한 회의가 아니다. 중국에서 출판되거나 국내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나름 학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어학 개론서들이나 음운론 서적들에 등장하는 운모 'iong'의 四呼 귀속이 현실음과 맞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연구서들 간 귀속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본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경대학교 중문과에서 펴낸 『現代漢語』(1993)에서는 운모 'iong'를 撮口呼에 귀속시키고 있다. 또 黃伯榮·廖序東(主編)이 펴낸 『現代漢語』(2007)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撮口呼에 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漢語拼音方案』이나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1989)에서는 해당 운모의 운두가 [i]로 제시되어 있어 제치호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불일치, 즉 운모 'iong'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드러내고 논리적인 해답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어병음 'iong'으로 표현되는 운모의 사호 귀속이 선행연구들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는 것은 결국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sup>5)</sup> 현실음을 반영하는 현대 중국어 음운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나름의 결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어느 관점이 옳고 그른가를 가려봄에 있어서 음운론적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연구서들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실제 중국어 음운론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5) 여기서 말하는 선행연구 검토란 한어병음 'iong' 운모를 중국의 권위 있는 개론서들이나 음운론 서적들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한어병음 'iong'의 사호 귀속 문제를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또 다루었다더라도 내용이 매우 간략하기 때문이다.

## 2. 운모 'iong'의 선행연구 四呼 귀속 개괄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漢語拼音方案』에서는 'iong'을 'i', 'ia', 'ie', 'iao', 'iou', 'ian', 'in', 'iang', 'ing' 등과 같이 제치호 옆에 배열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중국어 개론서, 음운학 전공서적<sup>6)</sup> 및 관련 논문들에서 운모 'iong'에 대한 귀속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먼저, 운모 'iong'을 찰구호로 귀속시킨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인다. 이렇게 분류한 경우 'iong'은 [yŋ], [yʉŋ], [yæŋ], /yeŋ/ 등<sup>7)</sup>으로 전사된다. 黃伯榮·廖序東(主編)『現代漢語』에서 제시한 '普通話韻母總表'에서는 'iong'을 찰구호에 배열하고 발음은 [yŋ]으로 제시하였다.

[표1]

		開口呼	齊齒呼	合口呼	撮口呼	
單韻母	單元音韻母	-i[ɿ][ʅ]	i[i]	u[u]	ü[y]	無韻尾韻母
		a[A]	ia[ia]	ua[ua]		
		o[o]		uo[uo]		
		e[ɤ]				
		ê[e]	ie[ie]		üe[ye]	
		er[ə]				
複合韻母	複元音韻母	ai[ai]		uai[uai]		元音韻尾韻母
		ei[ei]		uei[uei]		
		ao[au]	iao[iau]			
		ou[ou]	iou[iou]			
	帶鼻音韻母	an[an]	ian[iæn]	uan[uæn]	üan[yan]	鼻音韻尾韻母
		en[ən]	in[in]	uen[uən]	ün[yn]	
		ang[aŋ]	iang[iaŋ]	uang[uaŋ]		
		eng[əŋ]	ing[iŋ]	ueng[uəŋ]		
			ong[uŋ]	iong[yŋ]		

6) 본고의 고찰을 위해 검토한 현대중국어 개론서 및 음운학 관련 전공 서적 중 운모 'iong'이 나타내는 음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7) [ ]는 음성, / /는 음소를 나타내는 데 쓰이지만 2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도록 하였다.

[표1] 안에 배열된 운모 'ong'에 대한 주석에서는 'iong'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는데, 'iong'을 활구호로 배열한 것은 실제 독음에 의한 것으로 『漢語拼音方案』에서 [uŋ], [yŋ]을 'ong', 'iong'로 표기하고 'ung', 'üŋ'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자형을 뚜렷하게 나타내 필기체 'ü'와 'a'가 혼동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sup>8)</sup> 그리고 발음에 관해서는 'iong' 등의 후비음(post-nasal) 운모를 발음할 때에는 먼저 모음부터 발음하는데, 운모 'iong'을 발음할 때 먼저 발음하게 되는 모음은 'ü'(y)이지 'io'가 아니라고 하였다.<sup>9)</sup> 陳阿寶(主編)의 『現代漢語概論』에서 제시한 '普通話韻母總表'도 대체로 黃伯榮·廖序東(主編)의 『現代漢語』를 따르며 'üan'의 경우만 [yɛn]으로 표기하였다.<sup>10)</sup>

唐作藩의 『音韻學教程(第三版)』에서도 현대 표준중국어의 운모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sup>11)</sup>

[표2]

ɿ ʅ	i	u	y
a	ia	ua	
o		uo	
ə	ie		ye
ai		uai	
ei		uei	
au	iau		
əu	iəu		
an	ian	uan	yan
ən	in	un	yn
aŋ	iaŋ	uaŋ	
əŋ	iŋ	uŋ	yŋ
ə			

위의 표를 통해, 이 책에서는 'iong'을 활구호로 귀속하고 발음은 [yŋ]로 나타내

8) 黃伯榮·廖序東(主編), 『現代漢語(增訂4版)』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7(2010重印), 51쪽.

9) 위의 책, 52-53쪽.

10) 陳阿寶(主編), 『現代漢語概論』,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2(2005重印), 32쪽.

11) 唐作藩, 『音韻學教程(第三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42쪽.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向熹의 『簡明漢語史』에서는 『中原音韻』과 현대 표준중국어를 비교하였는데, “『中原音韻』의 찰구호 [iuŋ], [iuəŋ]은 합류하여 현대에서는 [yŋ](한어병음방안에서는 iong으로 표기)이 되었고 [iuŋ]의 舌齒音<sup>12)</sup>은 ‘濃濃醜龍隴戎冗中鐘腫重冲樅從松嵩’처럼 현대에서는 ong[uŋ]으로 읽고, 牙喉音은 ‘穹芎窮邛凶胸洵熊雄’처럼 현대에서 iong[yŋ]으로 읽으며, (『中原音韻』의) [iuəŋ]은 현대에서 ‘肩瓊熒惇兄頃迥榮永詠’처럼 iong[yŋ]으로 읽는다”<sup>13)</sup>고 설명하여 표준중국어 운모 ‘iong’을 [yŋ]로 나타내었다.

王力の 『漢語史稿』 중 ‘現代-ŋ韻母的發展’에서는 중고(中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의 -ŋ 운미의 글자들은 중고 중국어 通攝, 宕攝(江攝과 합류), 梗攝(曾攝과 합류)에서 왔다. 이들 -n운미의 글자들과 대응시켜 볼 때 대체적으로 宕攝은 山攝에, 梗攝은 臻, 深攝의 개구호와, 通攝은 臻攝의 합구호와 대응되며, 宕攝은 오늘날의 aŋ, iaŋ, uaŋ이 되었고, 梗攝은 əŋ, iŋ이, 通攝은 uŋ, yŋ이 되었다. 여기서 王力은 通攝에서 온 yŋ을 실제로는 iuŋ으로 읽는다고 언급하였다.<sup>14)</sup> 그는 근대중국어 시기에 이르러 중고의 江攝이 宕攝에, 曾攝이 梗攝에 병합된 이후 通, 宕, 梗攝이 서로 대립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근대까지 존재했던 梗攝의 합구호와 찰구호가 通攝에 병합되면서 합구호와 찰구호가 없는 梗攝의 개구호와 제치호(əŋ, iŋ), 개구호와 제치호가 없는 通攝의 합구호와 찰구호(uŋ, yŋ)가 상보적 분포를 이뤄 사호를 모두 갖춘 하나의 攝이 된다고 하였다.<sup>15)</sup> 그는 또 이렇게 사호를 모두 갖춘 əŋ, iŋ, uŋ, yŋ은 -n운미의 ən, in, un, yn에 대응되며, 『康熙字典』앞머리에 실린 「字母切韻要法」의 庚攝<sup>16)</sup> 및 주음부호 ㄨ, |ㄨ, ㄨㄨ, ㄨㄨㄨ<sup>17)</sup>의 근거라고 하였다. 이후의 서술에서 그는 yŋ과 iuŋ을 병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한 역사적 변

12) 성모가 舌音 또는 齒音, 半舌, 半齒音인 경우를 말한다.

13) 向熹, 『簡明漢語史(修訂本)』(上), 北京, 商務印書館, 2010. 342-343쪽.

14)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2004重印), 221쪽.

15) 위의 책, 224쪽.

16) 중고(中古)시기 중국어의 通, 梗, 曾攝을 모두 아우르는 韻攝이다.

17) 각각 한어병음의 ‘eng’, ‘ing’, ‘ong(ueng)’, ‘yong’에 해당한다.

화 상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sup>18)</sup>

[표3]

登庚耕	uəŋ, wəŋ, wæŋ		
東冬	uŋ, uoŋ		uŋ
東鐘	iŋ, iwoŋ		
庚清青	iweŋ, iweŋ, iweŋ		iuŋ(yŋ)

王力는 또 다른 저서 『漢語音韻』에서도 ‘窮’, ‘雄’ 등의 표준중국어 운모를 [iuŋ]으로 나타내고, 운두와 운미가 다 있는 운모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끝이어 [iuŋ]은 [yŋ]으로 간주되며 [əŋ]의 찰구호가 된다고 설명하였다.<sup>19)</sup>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編)의 『現代漢語』의 ‘舌根鼻音韻母’ 부분에서는 운모 ‘iong’을 [iuŋ]으로 표기하였다. 이 책에서는 ‘iong’의 ‘o’는 국제음성부호 [o]보다 혀의 위치가 다소 높아 [u]에 근접하며 ‘iong’의 [i]는 원순성을 약간 띠고 있어 [y]에 가까운데, 말소리 체계를 고려하면 ‘iong’은 [yŋ] 또는 [yuŋ]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20)</sup> 이어 ‘四呼’ 부분에서는 ‘iong’[iuŋ]을 찰구호에 배열하였는데 이와 같이 배열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iong’의 실제 독음에서 시작 부분은 종종 원순성분을 띠고, 제치호 또는 찰구호 둘 중 어느 쪽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漢語拼音方案』에서는 ‘iong’이라는 한어병음의 형식에 따라 제치호로 분류하였는데, 말소리 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자면 찰구호에 귀속시켜야 하며, 국제음성기호 [yŋ] 또는 [yuŋ]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sup>21)</sup>

‘iong’을 [yuŋ]으로만 전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김태경의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에서는 ‘iong’을 찰구호에 배열하고 [yuŋ]으로 나타냈다. 이 책에서 제시한 표준중국어의 운모는 아래 표와 같다.<sup>22)</sup>

18) 위의 책, 226쪽.  
 19)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2003(2007重印), 21-24쪽.  
 20)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編), 『現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1993(2003重印), 57쪽.  
 21) 위의 책, 58-59쪽.  
 22) 김태경,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서울, 학교방, 2014, 55쪽.

[표4]

운모 사호	영운미	-i	-u	-n	-ng	-r
개구	(i) e a {r}{y}{a}	ei ai {ei}{ai}	ou ao {ou}{au}	en an {ən}{an}	eng ang {əŋ}{aŋ}	er {ər}
제치	i ie ia {i}{ie}{ia}		iou iao {iou}{iau}	in ian {in}{ien}	ing iang {iŋ}{iaŋ}	
합구	u uo ua {u}{uo}{ua}	uei uai {uei}{uai}		uen uan {uən}{uan}	ong uang {uŋ}{uaŋ}	
찰구	ü üe {y}{ye}				iong {yŋ}	

운모 'iong'을 [yəŋ] 또는 /yeŋ/으로 나타낸 연구성과들도 있는데, 개구, 제치, 합구, 찰구의 사호 체계 완성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재돈의 『中國語音韻學』에서 제시한 표준중국어의 운모 중 비음 운미를 갖는 운모만 옮기면 아래와 같다.<sup>23)</sup>

[표5]

전비음미	[an], [ən] [ien], [in]({ien}) [uan], [un]({uən}) [yən], [yn]({yən})
후비음미	[aŋ], [əŋ] [iaŋ], [iŋ]({iaŋ}) [uaŋ], [uŋ]({uəŋ}) [yŋ]({yəŋ})

위의 표로부터, 이 책에서는 운모 'iong'을 [əŋ]의 찰구호로 보고 [yŋ] 또는 [yəŋ]으로 전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林濤, 耿振生の 『音韻學概要』에서는 운모 'iong'을 /yeŋ/으로 전사하고 있으며, /eŋ/, /ieŋ/, /ueŋ/과 대응된다. 이 책에서 제시한 표준중국어 운모표 중 -n, -ng 운미를 갖는 운모만 옮기면 아래와 같다.<sup>24)25)</sup>

23) 이재돈, 『中國語音韻學』, 서울, 학고방, 2007, 62-63쪽.

24) 표에서 괄호 안에 제시한 것은 한어병음으로 해당 운모를 적은 것이다.

25) 林濤·耿振生, 『音韻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2004, 28-29쪽.



[표6]

	/an/	/ian/	/uan/	/yan/
-n 운미	(an)	(ian)	(uan)	(üan)
	/en/	/ien/	/uen/	/yen/
	(en)	(in)	(un)	(ün, yun)
-ng 운미	/aŋ/	/iaŋ/	/uaŋ/	
	(ang)	(iang)	(uang)	
	/eŋ/	/ieŋ/	/ueŋ/	<u>/yeŋ/</u>
	(eng)	(ing)	(ong)	(iong)

위의 연구성구들에서 운모 'iong'을 찰구호로 귀속시킨 것과는 달리, 소수이지만 제치호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邵敬敏이 『現代漢語音論(第二版)』에서 제시한 '普通話韻母總表'에서는 아래와 같이 'iong'을 제치호로 분류하였다.<sup>26)</sup>

[표7]

	開口呼	齊齒呼	合口呼	撮口呼	
單元音韻母	-i[i]	i[i]	u[u]	ü[y]	無韻尾韻母
	a[A]	ia[iA]	ua[uA]		
	o[o]		uo[uo]		
	e[y]				
	ê[ɛ]	ie[iɛ]		üe[yɛ]	
	er[ə]				
複元音韻母	ai[ai]		uai[uai]		元音韻尾韻母
	ei[ei]		uei[uei]		
	ao[au]	iao[iau]			
	ou[ou]	iou[iou]			
帶鼻音韻母	an[an]	ian[ien]	uan[uan]	üan[yen]	鼻音韻尾韻母
	en[ən]	in[in]	uen[uən]	ün[yn]	
	ang[aŋ]	iang[iaŋ]	uang[uaŋ]		
	eng[ɤŋ]	ing[iŋ]	ueng[uɤŋ]		
	ong[uŋ]	<u>iong[yŋ]</u>			

그런데 'iong'의 발음에 있어서는 찰구호인 'ü[y]', 'üe[yɛ]', 'üan[yen]', 'ün[yn]'의 'ü'와 같은 [y]를 사용해 [yŋ]으로 표기하였다.<sup>27)</sup>

26) 邵敬敏, 『現代漢語音論(第二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 31-32쪽.  
 27) 위의 책, 36쪽.

운모 'iong'의 사호 귀속 문제에 대해, 尤敦明은 「ong和iong的歸類問題」(1983)에서 학자들이 전통 음운학의 입장에서 운모 'iong'을 활구호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발음에서 운두를 발음할 때 원순으로 명확히 느껴지지 않고, 운두는 [i]와 유사하며 순수한 [y]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고대 중국어에서 합구로 읽는 通攝에 속하는 글자이지만 지금은 개구, 제치로 읽는 예와, 通攝 외 다른 攝의 합구자들도 지금은 개구 또는 제치로 읽는 예를 다수 제시하여 고대 합구호에 속하는 글자를 현재 개구호, 제치호로 읽는 것은 말소리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그는 보통화에서 운모 'iong'의 발음이 제치호에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하므로 제치호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8)</sup>

이상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여러 학자들은 운모 'iong'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四呼에 대한 귀속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운모 'iong' 四呼 귀속의 불일치와 문제점

선행연구들에서 운모 'iong'은 활구호 또는 제치호로, [yŋ], [yʊŋ], [yəŋ], /yeŋ/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漢語拼音方案』 및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운모 'iong'의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전사된 발음 간에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4장에서 본고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운모 'iong'을 활구호로 귀속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모두 운두 또는 운복을 [y]로 기술하고 있다. 그 중 [yŋ], 즉 운복을 [y]로 전사한 경우가 제일 많이 보인다. 黃伯榮·廖序東(主編) 『現代漢語』(2007)에서는 운모 'iong'의 발음을 [yŋ]으로 제시하고, 'iong'[yŋ]을 발음할 때 먼저 발음하게 되는 모음은 'ü'[y]이지 'io'가 아니라고 하였다.<sup>29)</sup> 여기에 따르면, 'iong'[yŋ]의 [y]와 'ü'[y], 'üe'[ye], 'üan'[yan],

28) 尤敦明, 「ong和iong的歸類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年 01期, 1983, 140-142쪽.

'ün'[yn]의 [y]는 같은 발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준중국어에서 'iong'의 실제 발음 중 운미를 제외한 부분과 'ü'(y)의 발음이 완벽히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sup>30)</sup> 그 밖에 唐作藩(2002), 向熹(2010) 및 陳阿寶 외(2002) 등에서도 운모 'iong'을 [yn]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렇게 전사한 근거 및 발음상의 특징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王力(1980)에서는 운모 'iong'을 [yn]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iuŋ]으로 읽는다고 언급하였다.<sup>31)</sup> 『漢語音韻』에서도 '窮', '雄' 등의 표준중국어 운모를 [iuŋ]으로 나타내고, 운두와 운미가 다 있는 운모로 분류하였으나 [iuŋ]은 [yn]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王力が 운모 'iong'의 실제 발음을 [iuŋ]으로 제시하고서도 다시 [yn]으로 나타낸 까닭은 사호 중 찰구호로 귀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漢語音韻』에서 [əŋ], [iŋ], [uəŋ], [uŋ], [iuŋ]을 하나의 운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iŋ]은 [əŋ]의 제치호로 [iəŋ]으로 읽는 사람도 있으며 [iŋ]과 [iəŋ]이 호환된다고 하였다. [uəŋ]이 [əŋ]의 합구호임에도 문제가 없고, 보통화에서 [uŋ]과 변이형의 관계를 가져서 영성모일 때는 [uəŋ]('翁'), 자음 뒤에서는 [uŋ]('公')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iuŋ]은 [yn]으로 간주되며, [əŋ]의 찰구호가 된다고 설명하였다.<sup>32)</sup> 그는 [iŋ]과 [uŋ]을 각각 [əŋ]의 제치와 합구로 보며 변이음 [iəŋ]과 [uəŋ]을 제시하였는데, [yn]을 [əŋ]의 찰구로 보기 위해 필요한 [yəŋ]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王力은 『漢語語音史』의 '現代音系'<sup>33)</sup> 부분에서는 북경어의 운부를 총 16개로 분류하였다. 그 중 -ng 운미를 갖는 中東부에 속하는 운모는 총 4개로 개구호 [əŋ], 제치호 [iŋ], 합구호 [uŋ], 찰구호 [yn]인데, 이 운모들을 한어병음으로 나타내면 각각 'eng', 'ing', 'ong', 'iong'이 된다. 여기에서 王力은 주석을 통해 "[iŋ]은 [iəŋ]으로 실제 독음은 [iŋ]이며 [iəŋ]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음소 관념에 따르

29) 黃伯榮·廖序東(主編), 『現代漢語(增訂4版)』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7(2010重印), 53쪽.

30) 보통화 화자가 인지하는 운모 'iong'의 실제 음가에 대한 논의는 본고 4장 참고.

31)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2004重印), 221쪽.

32)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2003(2007重印), 24쪽.

33) 王力은 1911년부터 현재까지를 現代로 분류하였다.

면 [iəŋ]으로 하여야 한다. 아래의 [uŋ]은 [uəŋ], [yŋ]은 [yəŋ]으로 이와 같다<sup>34)</sup>고 하였다. 운부의 음가를 설명하며 그는 中東부 찰구호 [yŋ]의 실제 독음은 [iuŋ]이고 음소적인 관점에서 [yŋ]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청각적으로 [iuŋ]과 [yŋ]은 매우 비슷하다<sup>35)</sup>고 하였다.<sup>36)</sup> 그러나 중국어에서 [i]와 [y]는 변별적인 음소이므로 음성적으로 유사함을 들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王力은 中東부[əŋ, iŋ, uŋ, yŋ]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하며 중국 明, 淸 시기에 東鐘부와 庚淸부<sup>37)</sup>의 합류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운모 [əŋ, in, un, yn]을 포함하는 眞文부가 하나의 운부로 합쳐지는 예를 들어 東鐘과 庚靑이 하나의 운부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東鐘과 庚靑이 합병된 이후 中東부의 합구호와 찰구호에는 東鐘과 사호를 다 갖추고 있던 庚靑의 합구, 찰구호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王力은 전통 음운학에서 眞文[əŋ, in, un, yn]과 中東[əŋ, iŋ, uŋ, yŋ] 두 운부의 주요모음을 [ə]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제시한 대로 주음부호에서 ‘ㄨ, |ㄨ, ㄨ, |ㄨ’으로 나타내는 人辰轍<sup>38)</sup>의 개, 제, 합, 찰 사호는 [əŋ, iəŋ, uəŋ, yəŋ]으로, 주음부호에서 ‘ㄨ, |ㄨ, ㄨ, |ㄨ’으로 나타내는 中東轍의 사호는 [əŋ, iəŋ, uəŋ, yəŋ]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王力의 설명대로 ‘昏’, ‘溫’ 등에서 [uəŋ]의 [ə]가 비교적 잘 들리고, ‘影’ 등에서 [iəŋ]의 [ə]가 비교적 명확히 들린다. 그러나 그는 中東부의 찰구호에 속하는 글자들의 실제 발음이 [ə]가 들리는 [yəŋ]도 아닌, [ə]가 생략된 [yŋ]도 아닌 [iuŋ]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iuŋ]이 [yŋ]과 음성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34)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華書局, 2008, 471-472쪽.

35) 위의 책, 479쪽.

36) 실제 발음이 [iuŋ]라고 인식하면서도 음소적으로 [yŋ]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실 음을 전통적인 관점과 일관되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의 고민의 결과로 보여진다.

37) 중국 원대(元代) 周德清이 지은 『中原音韻』의 운부로 東鐘은 中古의 東, 冬, 鐘운, 庚靑은 中古의 庚, 淸, 靑운에 대응된다.

38) 중국 명청(明清) 시기 이래 북방의 曲藝에 있어 압운의 기준으로 삼는 13轍중의 하나로, 轍은 운(韻)을 뜻한다. 王力은 현대 북경어의 16개 운부와 13轍은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13轍에서는 현대 북경음계의 支思, 居魚부를 衣期轍에, 車遮부를 梭波轍에 편입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人辰轍과 中東轍은 각각 王力의 현대 북방음계 중의 人辰부와 中東부에 대응된다.

[iuŋ]을 [yŋ]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 배은한의 「중국어 운모 iong의 음가 분석 및 분류 문제 고찰」(2013)과 「撮口呼와 撮口呼 韻母의 分類體系 및 表記方式 改善案 提言」(2016)에서도 사호 체계를 고려해 운모 'iong'을 활구호로 분류하고 'üŋ[yŋ]<sup>39)</sup>로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는데<sup>40)</sup>, 이렇게 볼 경우 오히려 운모 'iong'의 실제 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sup>41)</sup>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編)『現代漢語』에서는 운모 'iong'을 [yŋ] 또는 [yüŋ]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책에서는 'iong'의 'o'는 국제음성부호 [o]보다 혀의 위치가 다소 높아 [u]에 근접하며 'iong'의 [i]는 원순성을 약간 띠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u]음이 나타나지 않는 [yŋ]으로 전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책에서 활구호로 분류한 'u[y], 'ue[yɛ], 'uan[yan], 'un[yn]의 [y]와 원순성을 띠는 [i]를 전사한 'iong'의 [y]간의 음성적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호 체계에 따른 음운 체계의 완성성을 고려해 운모 'iong'을 [əŋ], [iŋ]([iəŋ]), [uŋ]([uəŋ])과 대응하는 활구호 [yŋ]([yəŋ])으로 기술한 이재돈(2007)과 운모 'iong'을 /eŋ/, /ieŋ/, /ueŋ/과 대응하는 활구호로 보고 /yeŋ/으로 나타낸 林濤·耿振生(2004)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후자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음소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여 기호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사할 경우, 활구호의 운두([yŋ]의 경우는 운복) [y]와 王力가 여러 저서들에서 말한 실제 발음 [iuŋ], 북경대학의 『現代漢語』에서 묘사한 '원순성을 약간 띠고 있는 [i]'의 음성적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운모 'iong'을 제치호에 귀속한 邵敬敏(2007)에서는 제치호를 '운복이 i이거나 i로 시작하는 운모'로 규정하였다.<sup>42)</sup> 그렇지만 운모 'iong'의 발음은 [yŋ]으로 표

39) 약식전사법으로는 [yŋ], 정밀전사법으로는 [yəŋ]이라고 밝혔다. 배은한, 「중국어 운모 iong의 음가 분석 및 분류 문제 고찰」 『中國文學研究』 제50권, 서울, 한국중문학회, 2013, 267쪽 참조.

40) 위의 논문, 253-269쪽 및 배은한, 「撮口呼와 撮口呼 韻母의 分類體系 및 表記方式 改善案 提言」 『中國語文論譯叢刊』 제38집,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156-158쪽 참조.

41) 한어병음방안을 제정할 때 이미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4장 및 中國文字改革委員會, 「關於漢語拼音方案草案的說明」 『文字改革』, 1957년12期, 北京, 語言文字報刊社, 1957, 10쪽 참조.

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제치호에 속하는 'iong'의 발음이 어째서 찰구호의 한어병음 'ü'의 발음과 같은 [y]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책에는 운모에 대한 설명 뒤에 따로 '발음 훈련' 부분도 있는데, 운모 'iong'의 경우 발음을 [yŋ]으로 제시하고 'xiōngyǒng(馮涌), jiǒngjiǒng(炯炯), xióngxióng(熊熊), qióngjiǒng(窮窘), qióngxiǒng(窮凶), xióngxīn(雄心)' 등의 단어를 나열하였다. 그러나 먼저 모음을 발음하고 연구개비음 [ŋ]을 발음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설명 외에 운모 'iong'에 대한 발음요령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43)</sup>

음성학 교재인 林濤·王理嘉의 『語音學教程』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운모 'iong'을 [yŋ]으로 나타내었지만, 'iong'의 발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음성적인 설명을 부가하였다. "[yŋ]의 [y-]와 [-ŋ] 사이에는 과도음 [u]가 있으므로 [yuŋ]으로 표기해도 되며, 북경 사람들 중 일부는 제치호 [iuŋ]으로 읽는데 [u]의 혀높이는 약간 낮아서 [iöŋ]에 가깝다."<sup>44)</sup> 이러한 묘사는 운모 'iong'의 실제 발음이 [yŋ]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묘사한 음성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다른 연구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운모 'eng', 'ing', 'ong'과 'iong'을 각각 [əŋ], [iŋ], [uŋ], [yŋ]으로 전사하여 사호가 다 갖춰진 것<sup>45)</sup>으로만 설명하였다.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운모들을 서로 대응시켜 사호 체계 내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음성 관찰 결과로 얻은 [yuŋ]이나 [iöŋ]이 아닌 [yŋ]으로만 운모 'iong'을 나타낸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일면이다.

운모 'iong'의 실제 발음에 대해, 중국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보통화 교재인 張大鵬·王琦·張薇의 『普通話語音發聲訓練教程』에서는 "i음은 o음의 영향을 받아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어 ü음에 가깝게 되기 쉽다"<sup>46)</sup>라고 하였다. 비록 한어병음

42) 邵敬敏, 『現代漢語通論(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 30쪽.

43) 다만 운모 'ueng'과 'ong'에 대해서는 발음이 서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 주의하여 변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운모 'iong'의 발음에 대해서는 'ueng' 또는 'ong'보다 명확하게 밝혀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 林濤·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2007重印), 113-114쪽.

45) 이 책에서는 'eng' [əŋ], 'ing' [iŋ], 'ong' [uŋ], 'iong' [yŋ]을 모두 운복만 있고 운두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46) 張大鵬·王琦·張薇, 『普通話語音發聲訓練教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1, 62쪽.

과 실제 음가와와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sup>47)</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i]의 정밀한 전사가 '원순성을 약간 띠고 있는 [i]'<sup>48)</sup>라고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개구, 제치, 합구, 활구 즉 사호의 일관된 대응 관계를 맞추려다 오히려 운모 'iong'의 실제 독음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해당 운모의 현실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호의 안정성을 위해 현실음과 별개인 어떤 음가를 제시하여 사호에 귀속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제 4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운모 'iong'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실음 음가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 4. 실제 음가 인식에 기반한 운모 'iong'의 四呼 귀속

역사적인 음변(音變) 과정을 고려해 보면 [y]는 [iu]로부터 변화된 것으로 본다. 耿振生(1992)은 『中原音韻』 시기에 四呼는 이미 그 기초를 다졌고 명초(明初) 『洪武正韻』과 『韻略易通』에서 魚韻과 模韻이 나누어지는 것은 魚韻이 [iu]에서 [y]로 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다.<sup>49)</sup> 많은 현대 음운학자들도 이 시기에 [y]는 [iu]가 변화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 활음 [y]를 써서 활구호를 표기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명초로 보지만 청초(淸初)까지도 『五方元音』과 『拙庵韻悟』 등의 운서를 보면 활구호 귀속 문제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활구호가 여전히 발전 과정 중이었고 불안정했음을 보여준다.<sup>50)</sup> 요컨대 [y]는 [iu]로부터 변화, 발전된 음이고 운두 [y]는 대체로 활구호에 귀속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 그 귀속 문제가 과거에도 일관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어떤 음절의

47) 왜냐하면 운모 'iong'에서 한어병음 'o'의 실제 음가는 [o]가 아닌 [u]이기 때문이다.

48) 앞 쪽의 논의 참고.

49)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文出版社, 1992(1998重印), 62쪽.

50) 이 부분의 논의는 黃雪晴, 『從《音韻闡微》到普通話的撮口呼』 『湖北社會科學』 2013年第3期, 武漢, 湖北省社會科學聯合會·湖北省社會科學院, 2013, 120쪽 참조.

찰구호 귀속 문제는 다른 세 호(呼)에 비해 의견이 분분했음을 반영한다.

黃雪晴(2013)은 청초 황제의 명에 의해 이광지(李光地) 등이 편찬한 운서 『音韻闡微』를 분석한 결과 모두 17,366개의 음절 중 찰구호가 2,266개로서 그 중 1,069개가 현재 보통화에서 찰구호로 발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그 중 120개의 글자가 중고(中古)의 합구 세음(合口細音)에서 온 것으로 운복이 [u]에 가까운 [o]이며 이것들은 절대 다수가 비음운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운모 'iong'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하는 경우인데 그는 『音韻闡微』의 분석을 토대로 몇몇 방언에서는 찰구호로 읽히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통화의 경우 청초에 이미 이들의 운두가 [y]로 읽히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51)</sup> 이는 3장의 논의와 상술한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운모 'iong'의 음가를 [yn]으로 전사하여 찰구호로 귀속시키는, 현재 많은 전문 연구서들의 분류가 확실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1950년대 보통화 현실음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漢語拼音方案』에서는 운모 'iong'을 제치호와 같은 열에 제시하고 있다. 즉 운두를 [i]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中國文字改革委員會의 「關於漢語拼音方案草案的說明」(1957)에서는 한어병음방안 제정 전 원래 초안의 yng를 새로운 초안에서 iong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iong이 yng보다 실제음에 더 부합한다고 하였다.<sup>52)</sup> 또 다른 현대 중국어 현실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1989)에서는 보통화 음운의 기저음을 제공하고 있는 북경어의 경우 운모 'iong'의 음가가 [iun]으로 제시되어 있다.<sup>53)</sup> 해당 운모의 음가를 西安 방언의 경우 [yon]으로, 太原 방언의 경우 [yun]으로 전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운두가 [i]로 발음되는 것과 [y]로 발음되는 것을 구분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成都나 長沙 방언의 경우 해당 운모의 음가를 [yn]으로 전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1) 예를 들면 扁 jiōng, 穹 qiōng, 蛩 qiōng, 窳 jiōng, 洵 xiōng, 兄 xiōng, 夔 xiòng, 雄 xióng, 迥 jiōng 등이 있다. 예는 위의 논문 122쪽 참조.

52) 中國文字改革委員會, 「關於漢語拼音方案草案的說明」『文字改革』, 1957年12期, 北京, 語言文字報刊社, 1957, 10쪽.

53)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는 중국 7대 방언을 대표하는 지역 방언 20개의 자음(字音) 자료를 수록한 책으로 모두 2,961개 한자의 지역음이 실려 있다.



[iu]를 [y]과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다.<sup>54)</sup>

위와 같은 현실음의 전사를 고려함에 있어 현재 모어 화자들은 어떻게 운모 'iong'를 인지하고 있을까 확인을 해보고자 본고에서는 중국어학을 전공한 10명의 모어 화자<sup>55)</sup>와 전공을 불문한 165명의 모어 화자<sup>56)</sup>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sup>57)</sup> 설문에서는 이름, 고향, 성별 및 연령을 묻고 각각에게 음절 'qióng', 'yóng', 'jióng', 'xióng'을 발음하게 한 뒤 운모가 [iu]와 [y], [yu] 중에 어떤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묻고, 만약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물었다.<sup>58)</sup> 조사 결과, 중국어학 전공자의 경우 [iu]으로 대답한 예가 32.5%, [yu]으로 대답한 예가 57.5%로 나타났다.<sup>59)</sup> 전공을 불문한 경우 설문 대상자의 70.76%는 [iu]이라고 대답한 반면 [y]은 18.48%, [yu]으로 인식된다고 대답한 경우는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sup>60)</sup> 중국어학 전공자의 경우 [yu]을 선택한 이유가

54) 해당 운모는 北京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 368-370쪽에서 볼 수 있음.

55) 20대 후반~40대 초반의 남자 3명과 여자 7명으로 北京, 山東, 吉林, 黑龍江, 河南, 湖南, 廣西 지역 출신이다.

56) 20대가 대부분(10대, 30대, 50대 소수)으로 남자 21명, 여자 144명이 참여하였다. 北京, 山東, 吉林, 黑龍江, 河北, 河南, 湖北, 湖南, 江蘇, 安徽, 福建, 新疆, 甘肅, 江西, 廣東, 廣西, 雲南, 重慶 출신이다.

57) 설문은 보통화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운모 'iong'을 발음할 때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 즉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intuition)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본고의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일례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음가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실험음성학적인 분석은 별개의 연구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문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하길 바란다.

58) 이렇게 네 가지 음절을 발음하게 한 이유는 운모 'iong'과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성모 중에 이 음절에 해당하는 실제 글자가 존재하고 제3성처럼 상대적으로 장조(長調)인 발음을 피해 변이음(allophone)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59)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ióng	yóng	jióng	xióng	계
[iu]	30%	30%	30%	40%	32.5%
[y]	0%	0%	0%	0%	0%
[yu]	60%	60%	60%	50%	57.5%
기타	10%	10%	10%	10%	10%

60)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ióng	yóng	jióng	xióng	계
[iu]	78.18%	53.33%	74.55%	76.97%	70.76%
[y]	11.52%	32.73%	15.15%	14.55%	18.48%
[yu]	8.48%	10.91%	9.09%	6.67%	8.79%
기타	1.82%	3.03%	1.21%	1.82%	1.97%

운모 'iong'의 발음이 [iuŋ] 보다는 운두를 발음할 때 원순성이 느껴져서 선택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 [iuŋ]이 아닌 [ioŋ]으로 인식한 화자도 있었다. 전공을 불문한 경우 [iuŋ]과 [yŋ], [yuŋ]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설문 대상자들 중엔 성모와 운모를 구분하지 못해서 기타로 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의 설문 결과도 앞서 언급했던 보통화의 운모 'iong'의 운두를 적어도 [y]로는 전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운두가 [i]인 것 보다는 원순성이 느껴진다는 모어 화자들의 언어적 직관을 존중할 때 운모 'iong'을 단순히 [iuŋ]으로 전사하고 체치호로 구분하는 것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어 화자들의 상기한 언어적 직관 중 원순성을 지적한 경우를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들도 몇몇 존재한다. 바로 운모 'iong'의 음가를 [yuŋ]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들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소 /i/와 /y/의 차이는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인 혀의 높낮이와 앞뒤 면에서 모두 전설고모음으로 동일하고 원순성에서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비원순인데 반해 후자는 원순모음이다. 2·3장에서 제시된 몇몇 연구들에서도 [yuŋ]과 같이 운두를 [y]로, 운복에 따로 [u](혹은 그와 비슷한 음)를 제시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제시는 해놓고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제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면이 있다. 아마도 선행연구들의 [yŋ]이 현실음을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고 무리가 있어 보임을 인지하였으나 사호 귀속에 있어 찰구호는 유지하되 운복에 [u]를 첨가한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된다. 이 밖에 任亞平(1986)도 짧은 편쪽의 소논문을 통해 [yŋ]은 옳지 않고 [yoŋ]으로 정밀 전사해야 하지만 간략 전사를 사용한다면 [yuŋ]으로 적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한어병음과 실제 발음을 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논의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sup>61)</sup> 方慶蓉·施向東(2014)에서는 6명의 화자에게 한어병음 'ü, iong, ong, i' 이렇게 네 개의 운모를

61) 예를 들면, '한어병음 'i'는 운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어병음 'o'가 운복이 아니기 때문이며 한어병음 'i'와 'o'가 합쳐질 때에 음소 'y'가 되어 운복이 된다'는 식의 설명이라든가 한어병음 'zh, ch, sh, ng' 등을 자음군(consonant cluster)으로 설명하는 방식 등이 그러하다. 任亞平, 「iong記作[yŋ]不妥」『漢語學習』1986年第3期, 延吉, 延邊大學, 1986, 47쪽.

발음하게 하고 이를 Praat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모 'iong'의 음가는 [yɔŋ]으로 전사하고 활구호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운 분석에서 운모 'iong'의 시작 부분이 한어병음 'i' 보다 'ü'에 가깝고 운복 부분은 한어병음 'ong'의 운복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매우 적은 숫자를 바탕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논문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sup>62)</sup> 여전히 [yŋ]은 아니지만 활구호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쨌든 이런 연구들은 저자가 운모 'iong'의 운두가 [i] 보다는 원순성이 있다고 직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견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1989)에서는 운모 'iong'의 발음에 있어 북경음을 [iuŋ]으로 전사하면서 방언음의 [yɔŋ]과 분명히 다르게 전사하고 있다. 사호의 개념과 상관없이 중국어 음절을 전사하고 있는 서양의 권위 있는 음운론 저서들을 살펴보면 운모 'iong'의 운두를 [i]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in(2007)에서는 중국어 음절을 한어병음에 해당하는 IPA로 모두 전사하여 부록(Appendix B)에 달아놓고 있는데 운모 'iong'에 대한 IPA 전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3)</sup>

[표8]

한어병음	yong	jiong	qiong	xiong
IPA	juŋ	tɕjuŋ	tɕʰjuŋ	ɕjuŋ

위 표를 보면 운두 자리에 활음 [j]가 전사되어 있는데 이는 운두 자리에 오는 모음 /i/가 실제로 활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서 음소 층위의 전사보다는 음성에 충실한 정밀 전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Lin(2007)의 전사는 확

62) 方慶蓉·施向東, 「試論韻母ong和iong的實際音價」『語文學刊(教育版)』2014年第16期, 呼和浩特, 內蒙古師範大學成人教育學院, 2014, 30쪽.

63) Yen-Hwei Lin,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89쪽.

실히 운두의 음가를 고려할 때 운모 'iong'을 제치호로 귀속시키는 견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서양권의 중국어 음운론 저서인 Duanmu(2007)에서도 보통화 404개 음절을 음소 층위와 음성 층위로 구분하여 모두 IPA로 전사해 부록에 제시해 놓고 있는데 운모 'iong'에 대한 전사는 다음과 같다.<sup>64)</sup>

[표9]

한어병음	yong	jiong	qiong	xiong
IPA(음소)	iuŋ	tsiuŋ	tshiuŋ	siuŋ
IPA(음성)	j <sup>w</sup> uŋ	tɕ <sup>w</sup> uŋ	tɕ <sup>h</sup> wuŋ	ɕ <sup>w</sup> uŋ

위 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운모를 전사한 부분인데<sup>65)</sup> 음소 층위에서 보면 운모 'iong'을 /iuŋ/으로 보아 운두 부분을 /i/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음성 층위의 전사는 Lin(2007)과 마찬가지로 운두 부분 /i/의 실현을 활음 [j]로 전사하고 있는데 이는 영성모 음절인 한어병음 'yong'의 전사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Lin(2007) 보다 더욱 정밀한 전사를 사용하여 [w]의 실현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앞서 모어 화자들의 어감에서 [i] 보다 원순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어감이 반영되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어병음 'jiong', 'qiong', 'xiong' 음절의 경우 음소 층위 전사의 /i/를 아예 [w]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부터 Duanmu(2007)는 운모 'iong' 운두의 현실음이 확실히 원순성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정밀하게 전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두를 [y]로 전

64) San Duanmu, *The Phonology of Standard Chinese(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19-329쪽. Duanmu(2007)에서는 개념을 기저 소리(underlying sounds)와 표면형 소리(surface sounds)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개념에 대한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본고의 표에서는 전자를 음소 층위로, 후자를 음성 층위로 제시하기로 하겠다.

65) Duanmu(2007)에서는 중국어 자음의 분류에서 표면형은 일반적인 IPA 전사와 동일한 견해를 보여주지만 기저형은 일반적인 분류와 다르게 상정한다. 즉 중국어 음절 배열의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에 따라 한어병음 'j', 'q', 'x'의 기저형을 /ts/, /tsh/, /s/로 보는 것인데 이는 본고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여기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

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중국어 모음 /i/와 /y/가 음소 층위에서 변별적임을 감안할 때 운모 'iong'의 음가가 /y/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 4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개론서나 음운론 서적에서 운모 'iong'을 /yn/이나 /yun/으로 제시하여 활구호로 귀속시키는 것은 현재 보통화의 현실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호의 개념을 운두만을 고려해 분류하는 것으로 본다면 운모 'iong'의 분류는 오히려 제치호로 귀속되는 것이 현대 음성·음운적인 시각에서 더욱 합리적인 결론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화의 현실음은 운모 'iong'의 운두가 모음 [i] 보다는 원순성이 있는 음인 것으로 생각되나 음소 층위에서 /y/에 이르는 원순모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음소 층위에서 본다면 /iuŋ/의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사로 볼 수 있다. 사실 조음의 측면에서 보면 전설평순고모음 [i]의 발음이 실제로는 활음으로 실현되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후설원순고모음인 [u]로 연결됨에 있어 곧이어 원순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원순전설고모음인 [y]로 발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i]와 [y]는 중국어에서 음소적 차원에서 변별적이기 때문에 [i]에 원순성이 재빠르게 뒤따르는 것을 [y]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음성·음운적으로 세밀하지 못한 분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본고가 덧붙여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 중국어 운모를 굳이 사호 안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호의 개념에서 운두가 중요하기는 하나 실제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음, 즉 주요모음에 해당하는 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어병음 'iong'을 /iuŋ/으로 전사할 때 주요모음이 /i/가 아닌 /u/라는 것은 제치호가 아닌 합구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운두에 /i/가 와서 확실히 제치호로 분류되는 경우 운복에 합구호나 활구호로 귀속될 여지가 있는 /u/나 /y/가 함께 오는 경우는 운모 'iong'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iong'을 /iuŋ/으로 보고 이를 제치호에 분류한다면 이 또한 운복에 /u/가 오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66)</sup> 실제로

운모 'iong'이 포함된 음절은 『現代漢語詞典(第7版)』(2016)에 제시된 총 417개 음절 중 1%가 채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하며<sup>67)</sup> 제시된 전체 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적어 0.5% 정도에 미치는 비율을 차지한다.<sup>68)</sup> 따라서 전통음운학의 사호를 논할 때 특정 호(呼)로 명백히 귀속될 수 있는 그 외 다른 운모와는 달리 특정한 하나의 호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전통음운학의 입장에서 보면 특이한 음절 구성의 경우로 언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대 중국어 음성·음운적인 시각에서 무리가 있음을 감안하면서도 굳이 현대 중국어 개론서나 음운서에서 중국어 음절을 논할 때 전통음운학에서 탄생한 사호의 개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나오는 말

본고는 기존 연구서들에서 보이는 중국어 운모 'iong'의 사호 귀속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다. 운모 'iong'은 연구마다 견해차를 보이며 서로 다른 사호 귀속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해당 운모를 /yŋ/으로 전사하며 활구호로 귀속시킨 반면 몇몇 연구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실음을 /yʊŋ/으로

66) 이런 상황은 운두를 /y/로 보고 /yʊŋ/으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직 /yŋ/으로 볼 때만 이런 여지가 생기지 않게 되는데 앞서 논의한 바대로 /yŋ/은 이미 보통화의 현실음과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모 'iong'의 음가로 볼 수 없다. /yŋ/으로 제시한 많은 기존 연구서들 중에는 /yŋ/으로 보아야 활구호 귀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여 이 같은 전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67) 『現代漢語詞典(第7版)』(2016)에 제시된 417개의 음절에는 한어병음 'kei'와 같은 방언음이나 한어병음 'm'이나 'ng' 같은 성절자음(syllabic consonant)도 소수 포함되어 있으나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여전히 운모 'iong'이 포함된 4개 유형의 음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68) 『現代漢語詞典(第7版)』(2016)에 제시된 한자가 총 몇 개인지는 정확히 제시된 바 없으나(사전의 15-69쪽에 걸쳐 한자가 제시됨.) 『現代漢語詞典(第6版)』 서문에 제시된 총 수가 13,000여개임을 감안할 때 운모 'iong'이 포함된 4개 음절을 지닌 한자 수는 총 71개(한어병음 'jiong' 12개, 'qiong' 11개, 'xiong' 11개, 'yong' 37개)에 불과하므로 전체의 0.5% 정도에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전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iun/으로 보아 제치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고찰하여 그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 운모 'iong'을 /yŋ/에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음과의 괴리감이 커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두를 /y/로 볼 것인가, /i/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의 판단과 사호와 관계없이 중국어 음절을 전사한 연구자들의 전사를 바탕으로 음소적 층위에서 /i/로 보고 음성적 층위에서 /i/ 보다 원순성이 가미된 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운두가 중요한 사호의 입장에서 보면 제치호로 귀속시킨 연구들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개론서나 음운론에서 현대 중국어 음절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운모를 굳이 전통음운학적 개념인 사호에 입각해 분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생각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운모 'iong'의 사호 귀속 불일치 문제에 대해 기존 현대 중국어 음성·음운 분야의 연구서들과 보통화 현실음 반영 자료들에 대한 고찰 및 간단한 모어 화자의 언어적 직감을 근거로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음가에 대한 더욱 확실한 결론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음성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과가 제시될 때 비로소 견고하게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의 논의가 운모 'iong'에 대한 기존 연구서들의 사호 귀속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자 함에 있어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參考文獻〉

- 김태경,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서울, 학교방, 2014.  
 배은한, 「중국어 운모 iong의 음가 분석 및 분류 문제 고찰」 『中國文學研究』 제50권, 서울, 한국중문학회, 2013, 235-273쪽.  
 배은한, 「撮口呼와 撮口呼 韻母의 分類體系 및 表記方式 改善案 提言」 『中國語文論譯叢』

- 刊』 제38집,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147-167쪽.
- 배은한, 「중국어 음운체계 변화 과정에 반영된 찰구호의 형성 과정 연구」 『中國文學研究』 제66권, 서울, 한국중문학회, 2017, 217-238쪽.
- 이재돈, 『中國語音韻學』, 서울, 학고방, 2007.
- 北京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匯(第2版重排本)』,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
-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編), 『現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1993(2003重印).
- 陳阿寶(主編), 『現代漢語概論』,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2(2005重印).
- 方慶蓉·施向東, 「試論韻母ong和iong的實際音價」 『語文學刊(教育版)』 2014年第16期, 呼和浩特, 內蒙古師範大學成人教育學院, 2014.
-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北京, 語文出版社, 1992(1998重印).
- 黃伯榮, 廖序東(主編), 『現代漢語(增訂4版)』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7(2010重印).
- 黃雪晴, 「從《音韻闡微》到普通話的撮口呼」 『湖北社會科學』 2013年第3期, 武漢, 湖北省社會科學聯合會·湖北省社會科學院, 2013.
- 林濤·耿振生, 『音韻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林濤·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2007重印).
- 任亞平, 「iong記作[yŋ]不妥」 『漢語學習』 1986年第3期, 延吉, 延邊大學, 1986.
- 邵敬敏, 『現代漢語痛論(第二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
- 唐作藩, 『音韻學教程(第三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0(2004重印).
-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2003(2007重印).
-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華書局, 2008.
- 尤敦明, 「ong和iong的歸類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年01期, 上海, 上海師範大學, 1983.
- 向熹, 『簡明漢語史(修訂本)』(上), 北京, 商務印書館, 2010.
- 張大鵬·王琦·張薇, 『普通話語音發聲訓練教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11.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 中國文字改革委員會, 「關於漢語拼音方案草案的說明」 『文字改革』, 1957年12期, 北京, 語言文字報刊社, 1957.
- San Duanmu, *The Phonology of Standard Chinese(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Yen-Hwei Lin,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부록〉

설문조사지: 온라인으로 진행(2018/07/12완료)  
(<https://www.wjx.cn/m/25940537.aspx?from=singlemessage>)

\*1. 您的性别是？

<input type="radio"/> 男
<input type="radio"/> 女

\*2. 您的故乡是？(XX省XX市XX区/县)

\*3. 您的年龄段是？

<input type="radio"/> 未满18岁
<input type="radio"/> 18-28岁
<input type="radio"/> 29-38岁
<input type="radio"/> 39-48岁
<input type="radio"/> 49-58岁
<input type="radio"/> 59-68岁
<input type="radio"/> 69岁及以上

\* 4. 试着读一下qióng,然后根据自己的感觉选择自己所念出的韵母(字母q后面的部分)部分

<input type="radio"/> /iong/ [iʊŋ]
<input type="radio"/> /üŋ/ [yŋ]
<input type="radio"/> /üung/ [yʊŋ]
<input type="radio"/> 如果感觉念出的韵母不是以上三个选项的话，请您用/汉语拼音/或[国际音标]写一下。 <input type="text"/> *

\* 5. 试着读一下yóng,然后根据自己的感觉选择自己所念出的韵母(字母q后面的部分)部分

<input type="radio"/> /iong/ [iʊŋ]
<input type="radio"/> /üŋ/ [yŋ]
<input type="radio"/> /üung/ [yʊŋ]
<input type="radio"/> 如果感觉念出的韵母不是以上三个选项的话，请您用/汉语拼音/或[国际音标]写一下。 <input type="text"/> *

\* 6. 试着读一下jiōng,然后根据自己的感觉选择自己所念出的韵母(字母q后面的部分)部分

<input type="radio"/> /iong/ [iɔŋ]
<input type="radio"/> /üŋ/ [yŋ]
<input type="radio"/> /üung/ [yɯŋ]
<input type="radio"/> 如果感觉念出的韵母不是以上三个选项的话，请您用/汉语拼音/或[国际音标]写一下。 <input type="text"/> *

\* 7. 试着读一下xióng,然后根据自己的感觉选择自己所念出的韵母(字母q后面的部分)部分

<input type="radio"/> /iong/ [iɔŋ]
<input type="radio"/> /üŋ/ [yŋ]
<input type="radio"/> /üung/ [yɯŋ]
<input type="radio"/> 如果感觉念出的韵母不是以上三个选项的话，请您用/汉语拼音/或[国际音标]写一下。 <input type="text"/> *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Belonging of *Yunmu* 'iong' to *Cuokou Hu*

Kim, Tae-Eun / Lee, Hyun-Sun

This paper is about the belonging of *yunmu* 'iong' to *cuokou hu*, which is one type of the *Si Hu*. Some scholars argue that *yunmu* 'iong' belongs to *cuokou hu*, and they present its sound value as /yŋ/, while some show that its sound value is /iuŋ/ or /yuŋ/. However, /yŋ/ is very different from the real sound of *yunmu* 'iong' in Mandarin, so the argument that *yunmu* 'iong' belongs to *cuokou hu* is a kind of unreasonable analysis. Based on the *Hanyu Pinyin Fangan*(The Scheme of the Chinese phonetic Alphabet) and *Hanyu Fangyin Zihui*(The vocabulary of Chinese dialects), we argue that the sound value of *yunmu* 'iong' should be transcribed as /iuŋ/, which can support the opinion that *yunmu* 'iong' belongs to *qichi hu*. In addition, a survey, which asks Mandarin speakers' intuition of *yunmu* 'iong',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y feel the [i] in *yunmu* 'iong' has more lip roundness than a usual [i], but the pronunciation is still not [y]. Besides, Duanmu(2007) also presented the sound value of *yunmu* 'iong' as /iuŋ/ on the underlying level and as [i<sup>w</sup>] on the surface level. When we consider all of the materials and research about the current sound of *yunmu* 'iong',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ound value of *yunmu* 'iong' is /iuŋ/ on the phonemic level, and it has more lip roundness in the real pronunciation. If *Si Hu* only considers the glide of *yunmu*, *yunmu* 'iong' can be classified into *qichi hu*. However, we think that the necessity of *Si Hu* in the explanation of Mandarin *yunmu* is in doubt. Nevertheless, if *Si Hu* must be used in the explanation of Mandarin *yunmu*, *yunmu* 'iong' should be treated as a special type of *yunmu*, which cannot belong to any type of *Si Hu*.

Key words: Mandarin, *yunmu* 'iong', *Si Hu*, *cuokou hu*, *qichi hu*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